

발주사의 loss 금액 차감 입금 관련 분개문의

Q 당사는 물류업체로서 발주사(화주)에게 화물주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주사가 사전 고지 없이 배송기사 패널티(작년 하반기 ~1월 발생)를 사유로 대금을 일부 차감한 후 지불하였습니다.(매출세금계산서 발급 이후)

당사는 도급사에게 해당 금액을 공제한 다음 입금할 예정입니다.

Q. 해당 내역을 매출인식시 어떻게 반영하여 분개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해당 내역 관련하여 도급사와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이라 매출액을 그대로 두고 발주사의 외상매출금을 그대로 상계하면서 loss금액만큼 도급사의 외상매입금을 차감하여 기장하였습니다.

A 발주사가 귀사에게 지급할 대금의 일부를 서비스의 불만족에 따라 차감하고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는 않고 일종의 배상이나 보상성격이므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처리

Q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가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승강기 교체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감가상각기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예를들어, 설치비 5천만원. 기존 건물: 내용년수 40년중 잔존 내용년수 15년
승강기를 교체하는 경우,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라 자산항목을 건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아니면 구축물 또는 집기비품 건물로 회계처리시 건물의 내용년수가 40년이 되나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는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40년의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건물의 내용년수와 동일하게 15년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A 건물의 부속설비가 노후화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구축물 등 별도의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하며, 건축물이 아닌 별도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선급금 세금계산서와 어음할인 가능 여부에 관한 문의

- Q** 거래업체가 세금계산서 수정을 합의 없이 진행하여, 현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다 아래와 같이 문의를 남깁니다.(저희는 매입업체 입장입니다)
"제작 납품 계약을 진행하며 선급금 30%를 전자어음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해당 어음을 할인하기 위해 은행에 문의하니 선급금 적요 때문에 어음할인이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 적요상 선급금 부분을 삭제하고 재발행할 것을 권하더군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적요를 수정하여 다시 발급합니다."
- 1)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은 법적으로 할인이 불가하다'는 은행의 판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업체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행하였는데, 매입업체 입장에서는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 A**
1. 선급금으로 받은 어음의 법적할인 관련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금융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수정발행은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발급하는 것이므로, 이미 발급된 수정세금계산서 대해 매입자(공급받은 자)는 공급자에게 재수정 요구 등의 이외에 별도의 세법상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적격증빙 관련 문의

- Q** 일용직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시에 회사 측에서 적격증빙에 기재해야 할 금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인가요 포함한 금액인가요?
- A**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이 적격증빙이 되며, 세금포함한 총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